

오석재 선수의 선교인생

오석재-웬만큼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70년대 말~80년대 중반 축구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그를 기억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당시 최다득점을 한 오석재는 차범근과 김재한, 허정무 등에 이은 한국축구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오석재는 80년대 말 홀연히 축구무대에서 사라졌고 이후 팬들은 그를 추억 속의 스타로만 기억할 뿐이었다.

그 이후 해외를 오갔던 그가 미국에서 잠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화려한 축구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오석재선교사'로... 지난 시절 그는 화려한 명성을 뒤로 한 채 묵묵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몸으로 담당했다. 90년부터 3년동안 인도네시아의 조그만 마을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오석재는 98년부터 미국에서 '미지의 물결 선교팀(Uncharted Waters)'이라는 체육선교회의 중심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내 선교단체의 집결지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둔 미지의 물결 선교팀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돌면서 스포츠를 통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각 주에 스텝들이 있으며 각 교회들과 연합해 청소년들에게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클리닉과 캠프를 열어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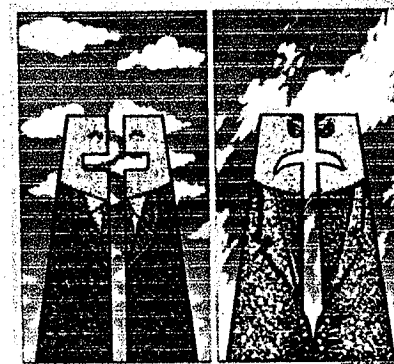
"78년 방콕 아시아경기를 마치고 화려하게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허리가 뼈뚫한 느낌을 받았고 이후 수술하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중증 디스크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수술할 경우 성공가능성은 물론 축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었다. 방콕에서의 우승과 최다득점자로 축구인생의 절정기를 맞았던 오석재는 한순간에 인생의 어두움에 빠졌다. 정상과 나락이 한 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깊은 절망감 속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허리를 고쳐주시면 당신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그에게 마침 모교인 건국대 영문과 교수 오혜식 목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네..." 라고 말했다. 바로 기도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16일동안 필사의 기도를 드렸다. 야곱이 압브람가에서 생을 걸면서 기도한 것과 같이 일사각오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았다. 그때가 오석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으며 BC(기원전)가 AD(기원후)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기도를 통해 축구스타 오석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후 허리 디스크는 전혀 재발하지 않았다.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 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 신앙'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2권 4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11월 26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두 종류의 대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다정한 대화 속에는 십자가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욕심의 배를 내밀며 자신의 주장만 내뱉을 때 그곳에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칼날이 나타납니다

(“나의 '삶, 나의 하나님'에서 계속)

83년 할렐루야축구단에 입단, 축구를 통한 선교활동을 벌였다. 꼴을 넣을 때마다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했으며 전국 교회를 돌면서 간증했다. 물론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도 계속 뛰었다. 86년에 할렐루야팀이 프로를 포기하고 아마팀으로 전환할 때 모든 프로구단이 오석재에 러브콜을 보냈다. 거액의 연봉도 제시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선교에 사로잡힌 그는 그대로 아마팀인 할렐루야에 남아 선교활동을 지속했다.

89년 은퇴한 오석재는 예장고신의 일반성도 체육선교사로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에 파송됐다. 그는 그곳의 임마누엘대학에서 축구클리닉을 열면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그를 통해 구원받았다. 93년 귀국, 할렐루야팀의 코치로 3년간 사역한 오석재는 미지의 물결 선교팀과 연결돼 98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저는 지난 시절 제 자신을 눈동자처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컸기에 과거의 화려함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지요"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50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0(시편 27)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44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송정섭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야고보서 2:14-17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믿고 행하라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55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 11.12월 예배 위원 >

일 자	헌금위원	기 도	teatime봉사
11/26	김교섭.정희자	송 정 섭	김교섭.김효권
12/3	최윤호.송정섭	신 경 화	김영길.이영권
10일	김효권.이영주	이 경 석	정재정.이상욱
17일	이경석.한은영	이 영 권	최재학.이경석
24일	최재학.노은숙	이 선 우	김효권.김성국
31일	김영길.신경화	최 재 학	김교섭.최윤호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30 pm	수요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새벽기도: 6:00
--------------	--------------------------	--------------

### 교 회 소 식

- 1.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시시오.  
\*지난주: 여호수아 1명 민수기 1명
2. 성찬식(예교)  
\*다음주일은 성찬주일로 드립니다.(분병:김교섭.정희자 분잔:김영길.신경화-가나다 순)
- 3.제직과 담당부서 임명  
\*12월 10일(셋째주일)에 갖겠습니다.
- 4.공동의회  
\*12월 17일(둘째주일)에 갖습니다
- 5.내년도 교회 목표"개인 경건의 시간(QT)의 생활화"  
\*실천사항:<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성경.찬송"  
<주일저녁>"가정 예배"(예배문) 정착
- 6."Christmas in the calvary": 12월 24일 저녁 7시
- 7.크리스마스예배: 12월 25일
- 8.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 밤 11:30
- 9 가정 "2분기도"  
\* "약속의 아비"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과 함께 "2분"기도를 실천사항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 10.자원봉사 : "믿음의 어머니"에서 KOSTA 식사 자원봉사를 12월 8일(금:아침,점심)에 갖습니다.
11. 김동호 목사(서울 동안교회) 초청 주일집회  
12월 둘째주일(10일) 예배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2. 선교위원회에서 고국의 농촌 미자립교회와 나눔 (선교비 지원)  
\*대상:신광교회(전남 신안군 도초면 화도리 45-2)  
이해완 목사,이선숙 사모. 세영.세희  
@선교비 지원 인상: 11월부터 해외(민지영 선교사),미자립교회(신광)선교비를 \$200로 인상 지원합니다  
갈보리교회 선교지원 원착: 조금씩 여러군데 보다 힘써 자립하도록 지원
13. 심방일정: 내년부터 월 1회 "가정심방"제도를 갖습니다(안내문 참조)
- 14.교우소식  
\*최재학 집사. 한국방문 후 은혜가운데 지난 22일(수) 귀국. 반갑습니다
15. 12월의 교회력  
성찬식(3).공동의회(10).직분임명(17).성탄절이브(24).성탄예배(25).송구영신예배(31)